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2
----------	------

발의연월일 : 2024. 7. 10.

발 의 자 : 서영교 · 박지원 · 이해식
이용우 · 박홍배 · 박홍근
이정현 · 강유정 · 박희승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생략)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u> 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병원급 의료기관</u>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 ----- ----- ----- ----- -----.
<u><후단 신설></u>	<u>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